

중국 절경(絶景)의 극치 신농산 神農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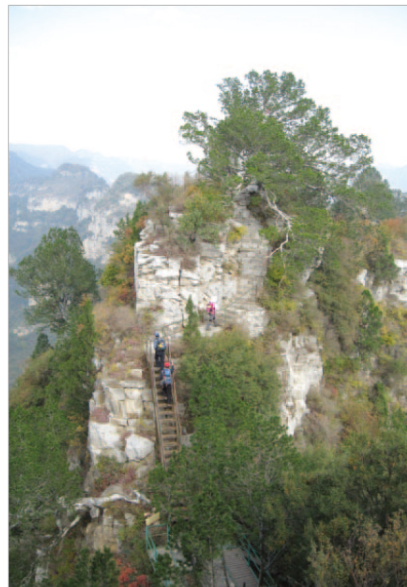
신농산(神農山)은 하남성 심양시(沁陽市) 경내에 있는 산이다.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구(景區) 중 하나로 국가중점풍경명승구(國家重點風景名勝區)이자 세계지질공원이며, 4A급 여유구(旅遊區)로 지정되어 있다. 전문가들의 고증에 의하면 이산은 염제(炎帝) 즉 신농씨(神農氏)의 부락활동(部落活動)이 가장 집중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던 곳으로 신농산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신농산은 태항산맥(太行山脈)에 속한 산으로 기이한 봉우리와 협곡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남태항산맥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다. 주봉(主峰)은 자금정(紫金頂:1,028m)으로 '중천옥주(中天玉柱)'라고도 불린다. 그 정상에 신농제단(神農祭壇)은 '천하제일제천단(天下第一祭天壇)' 또는 '염황자손제조단(炎黃子孫祭祖壇)'이라고 하며, 자신들을 염제와 황제의 자손으로 여기는 중국 한족(漢族)의 성지(聖地)다. 천연의 동식물 낙원'이라고 불리는 이 산에는 1,912종의 식물(희귀 약초 300여 종)과 260여 종의 척추동물이 있다. 그중 백송(白皮松) 16,000여 주(株)는 흙과 물이 거의 없는 신농산 절벽 능선의 가혹한 환경을 견디며 800년에서 수천 년 동안 자란 것으로 국가희귀보호수종(國家珍稀保護樹種)이다. 또한 이산에 살고 있는 원숭이 9개 군(群) 3,000여 마리는 지구 최북단에 서식하는 원숭이 무리로 국가2급희귀야생동물(國家二級類珍稀野生動物)로 지정되어 있다.

글\사진. 김종환 (감정평가사)

신농산의 주인장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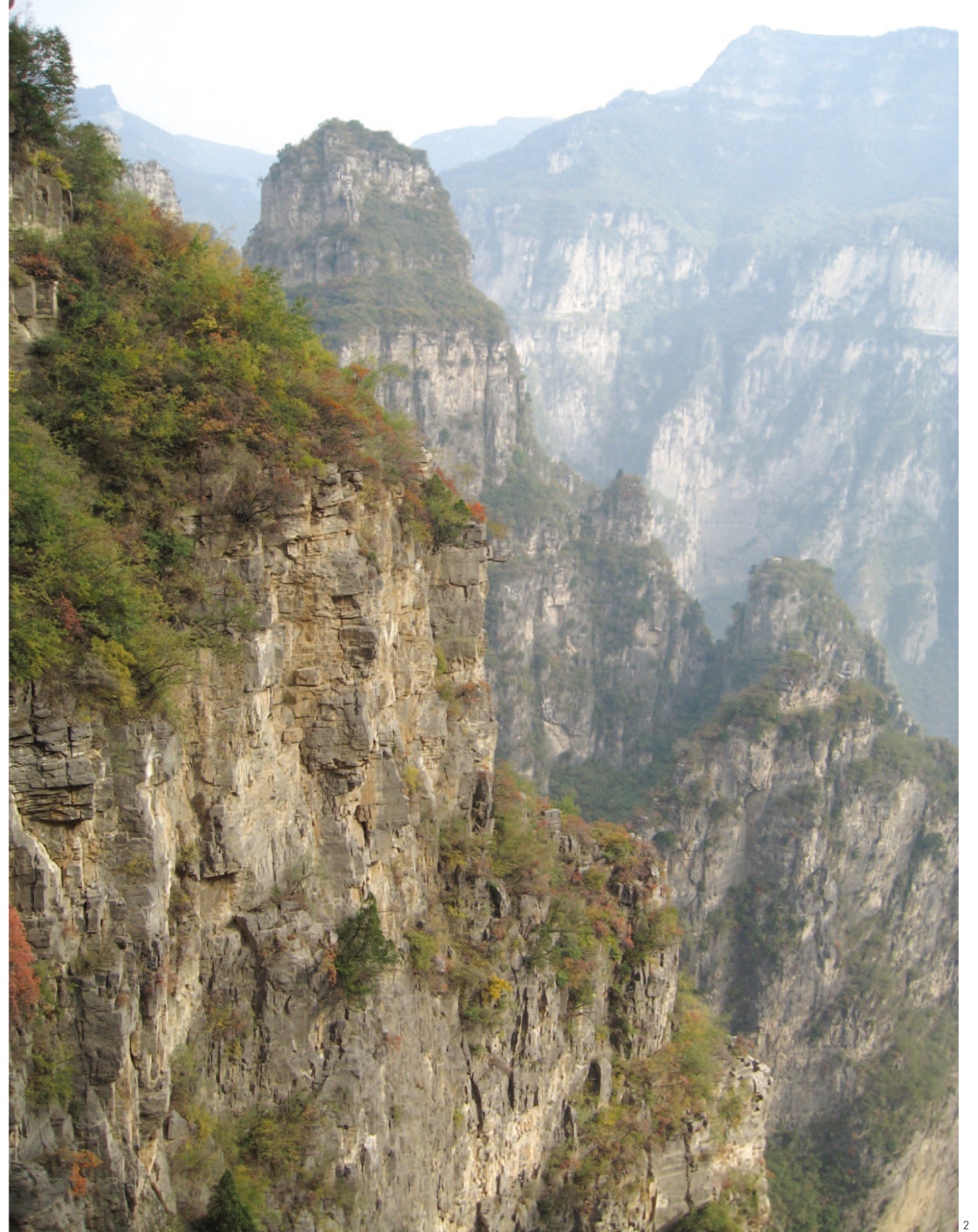
신농산 주차장에 내리니 열린 안개 속에 거대한 암봉들이 좌우로 병풍처럼 솟아 있었다. 성문처럼 만든 입구를 통과해 포장 도로를 조금 걷자 곧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에 둘러싸인 신농씨의 동상이 보였다. 높이가 20미터는 될 듯한 그 청동좌상(靑銅坐像)은 전설과는 달리 소의 머리 대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이마 양쪽에 긴 뿔은 달고 있었다. 두 팔로 받쳐 든 벼단은 인간을 위해 오곡(五穀)을 분별했다는 그의 업적을 상징한 것이라. 13인승 전기차를 타고 계곡을 따라 올라 등산로 입구(靑龍口)에 내렸다. 제법 가파른 돌계단 길옆에서 원숭이들이 놀고 있었다. 심산협곡(深山峽谷)의 신령스러운 기운(靈氣) 때문에 이렇듯 위도가 높은 북방에서도 살 수 있다고 선전되는 그 원숭이들은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운양사(雲陽寺)로 가는 갈림길을 지나 조금 더 오르니 정면의 송곳 같은 암봉 아래

도교사원인 삼황전(三皇殿)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신농산 케이블카 정류장(神農山索道下站)이 보였다. 케이블카가 고도를 높여가자 양쪽에 줄지어 선 수직 암벽과 단풍든 기이한 암봉들이 더욱 멋지게 조망되었다. 케이블카 상참(索道上站)에서 계단을 내려가니 벽돌로 쌓은 일천문(一天門)이 나왔다. 그 옆의 비문(碑文)이 '자금단창수묘문기(紫金壇創修廟門記)'인 것으로 보아 정상의 제단인 신농단(神農壇)은 원래 이름이 자금단임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명나라 융경년간(隆慶年間)인 경오년(庚午年:1570년)에 세운 그 비석에는 자금신(紫金之神)이라는 글자만 있고 어디에도 염제 신농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최근 중국정부가 황하 강변에 세운 염제와 황제의 거대한 석상처럼 중국 인민의 단결을 위해 이 산에 의도적으로 신농의 전설을 덧칠한 것이 아닐까 의심되었다.



1

1. 용척장성의 등산로
2. 신농산 암봉들



2



4

5

- 3. 용척장성 능선
- 4. 신농산 입구
- 5. 신농 동상
- 6. 수령 3900년인 제왕송

백송의 전설이 있는 곳에서

중천문(中天門)으로 이어진 돌계단 옆에 써놓은 ‘거리극정(距離極頂) 300m’란 붉은 글자는 정상이 멀지 않음을 알려주었다. 곳곳의 바위에는 그 성분을 표시한 석판(石板)이, 큰 백송에는 ‘배객송(拜客松)’, ‘결의송(結義松)’과 같은 이름과 설명문이 붙어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중천문을 통과한 뒤 왼쪽 길로 접어들어 도교사원인 삼청각(三淸閣)에 들렀다. ‘오운도덕천존(五雲道德天尊)’을 모신 그 3층 전각 옆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도교신자들이 울긋불긋한 깃발 아래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행사를 하고 있었다.

삼청각 뒤쪽 길로 가파르게 올라 정상에 다다랐다. 평탄하게 조성한 정상 한쪽에는 곧게 솟은 백송과 설명문이 붙은 커다란 바위가 보였다. 신농산경구(神農山景區)에서 제일 높은 소나무로 수령 3,800년인 그 백송은 마치 날아오르려고 하는 선학(仙鶴)의 모습을 가져, 중국에서 전해오는 ‘송학은 수명을 더 오래 늘여간다(松鶴延年益壽)’는 설에 따라 ‘장수송(長壽松)’으로 불린다고 한다. 정상부 최고점에 자리 잡은 제단 위에는 도철문이 양각된 커다란 정(鼎)이 놓여져 있었다. 수면문(獸面紋)이라고도 하는 그 문양은 고대의 전설에 나오는 일종의 나쁜 괴수(惡獸)를 표현한 것으로 재물을 탐하는 놈은 도, 음식을 탐하는 놈은 철이라고 한다. 상(商)나라 때 많이 사용되다가 주(周)나라 후기에 사라진 도철문은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으니 신농씨의 제단에 잘 어울리는 문양이리라.

3

정상을 떠나 하산을 시작했다. 철계단을 내려서니 바로 사신대(捨身臺)가 나왔다. 깎아지른 벼랑 위에 우뚝 솟은 그 바위 전망대 한쪽에는 ‘선유(仙遊)’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거기가 신선이 놀만큼 별천지(別天地)임을 말해주었다. 발아래 펼쳐진 무수한 암봉과 암벽들이 연출하는 장관을 감상한 뒤, 가파른 철계단을 따라 내려가 백송령(白松嶺)에 들어섰다. ‘용척장성(龍脊長城)’이라 고도 하는 그 암릉은 설악산의 용아장성(龍牙長城)을 이름처럼 그대로 빼닮았다. 다만 화감암이 아닌 석회암(石灰巖)이고, 세로 절리(節理)와 함께 가로 절리도 발달하여 보다 기이한 경관을 보인다는 점이 달랐다. 길이 11.5km인 용척장성은 높이 100-200m, 폭 2-10m인 봉우리 9개로 이루어졌다. 양쪽이 까마득한 벼랑이라 자연 상태 그대로라면 용아장성보다도 더 지나기 힘들었겠지만, 돌계단과 철계단으로 등산로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경치를 감상하며 편안히 갈 수 있었다. 길가로는 커다란 백송이 많이 눈에 띄었다. 백피송(白皮松), 사피송(蛇皮松) 또는 호피송(虎皮松)이라고 부르는 그 상록교목(常綠喬木)은 해발 500-1,500m 지대에서 자라며 영하 30도의 혹한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고목(古木)이 되면 마치 은룡(銀龍)처럼 보이는 그 나무를 중국인들은 ‘삼림속의 백설공주(森林裏的白雪公主)’라고 부른다.

봉우리 하나를 넘었을 때 왼쪽으로 안내관이 보였다. 그곳에서 발견된 ‘각석화석(角石化石)’을 설명한 것으로 4억여년 전 바다 속에 살던 각추형(角錐型) 육식동물의 화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고대의 해저(海底)를 걷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6



철계단을 지나 두 번째 봉우리에 오르자 오른쪽에 크고 멋진 백송이 보였다. 신농산 경구 내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수령이 무려 3,900년이며, 제왕과 같은 웅장한 위무(威武)가 있어 ‘제왕송(帝王松)’이라 불린다는 소나무였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송들의 나이가 불과 몇 백 년인 것을 생각하면, 단군(檀君)의 시대에 이 세상에 나온 그 나무는 그저 감탄스러울 뿐이다.

철계단을 지나 두 번째 봉우리에 오르자 오른쪽에 크고 멋진 백송이 보였다. 신농산 경구 내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수령이 무려 3,900년이며, 제왕과 같은 웅장한 위무(威武)가 있어 ‘제왕송(帝王松)’이라 불린다는 소나무였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송들의 나이가 불과 몇 백 년인 것을 생각하면, 단군(檀君)의 시대에 이 세상에 나온 그 나무는 그저 감탄스러울 뿐이다. 다시 돌계단을 내려가다 주황색 조끼를 입고 커다란 하늘색 배낭을 멘 여자를 만났다. 한손에는 빗자루를, 다른 손에는 대나무로 만든 집게를 든 청소부를 이 높은 산 암릉에서 보는 것은 아마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등산로 주위는 노란색 꽃을 피운 산국(山菊)과 붉게 물든 관목이 회고 푸른 백송과 어울려 독특한 운치를 이루었고, 수직 절벽 너머로는 멀고 가까운 기이한 봉우리들이 계속 절경을 연출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나라

공작이 날개를 편 것 같다는 백송(孔雀開屏)을 지나자 네모난 돌로 만든 정검다리가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 다리는 등산로 쪽으로 뻗어 나온 백송의 가지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놓은 것이다. 이 산 꼭대기의 능선을 돌로 덮어 등산로를 개설한 중국인들도 자연보호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돌로 등산로를 만들어 그 곳만 밟게 한다면 무수한 사람이 자연을 즐기면서도 자연 훼손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자연에 손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최고의 자연보호 정신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 용아장성릉이나 북주릉, 화채릉, 가야동계곡, 흑선동계곡, 곡백운계곡 같은 설악산의 비경지대는 출입조차 못하게 하지 않는가. 돈이 많은 사람만 자연을 즐기는 것이 불공평하다면, 체력이 약하거나 장애가

정류장 옆에 있는 일선천은 두 절벽 사이의 좁은 틈으로 거기에 아주 가파른 철계단이 놓여 있었다. 폭이 2-5m이고 높이는 100m인 협곡으로 아래에서 올라다보면 하늘이 한줄기 선(線)처럼 보여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중국의 명산에는 종종 같은 이름을 가진 장소가 있지만 이곳의 일선천은 그 중에서도 특별했다.



7



8

9

10

7. 일선천 철계단
8. 용척장성 능선
9. 신농산 정상의 석정
10. 정상 바로 아래 위치한 사신대

있는 사람에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더욱 불공평한 일일 것이다. 대청봉에 케이블카를 놓고 화채룽에 돌계단을 깔아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손쉽게 우리나라 최고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청봉에 올라 공룡릉을 넘어오는 새벽의 장엄한 운해(雲海)를 몇 번은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다리가 불편한 친구나 늙으신 부모님께 그 경치를 단 한번만이라도 보여주고 싶다고.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의 응력(應力)이 부딪쳐 만들어졌다는 바둑판 모양의 바위들이 있는 곳을 지나자 곧 가지를 넓게 펼친 백송과 벤치가 나타나났다. 정상을 떠난 지 40여분 만에 등산로는 거기서 능선을 벗어나 오른쪽으로 떨어졌다. 가파른 돌계단길은 단풍든 숲으로 이어졌고, 오른쪽에 솟은 암봉 아래로 일선천 케이블카 정류장(一線天索道上站)이 보였다. 이내 나타난 갈림길에서 직진하여 잘 정비한 계단길을 10여분 내려서니 케이블카 정류장에 이르렀다.

정류장 옆에 있는 일선천은 두 절벽 사이의 좁은 틈으로 거기에 아주 가파른 철계단이 놓여 있었다. 폭이 2-5m이고 높이는 100m인 협곡으로 아래에서 올라다보면 하늘이 한줄기 선(線)처럼 보여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중국의 명산에는 종종 같은 이름을 가진 장소가 있지만 이곳의 일선천은 그 중에서도 특별했다.

철계단을 다 내려와 뒤돌아보니 절벽에는 녹아내린 석회암이 붙어 있었고, 주위의 암봉들은 더욱 높아 보였다. 돌계단과 철계단을 번갈아 지나 아래쪽 케이블카 정류장(索道下站)에 도착했다. 거기서부터 한결 완만해진 등산로를 따라 가자 왼쪽으로 얇은 판을 켜켜이 쌓은 듯한 이상한 바위(羽狀交叉節理)가 나왔고, 자연이 만든 석문(石門)을 지나자 곧 청룡산장(靑龍山莊)에 다다랐다. 슬레이트지붕인 그 산장은 초라했지만 바로 뒤에 까마득하게 솟은 절벽은 장관이었다. 등산로는 공사중인 넓은 길과 만났고, 작은 저수지를 지나자 곧 오전에 전기차에서 내려 등산을 시작했던 청룡구(靑龍口)에 닿았다. ㉞

등산로

일반적인 등산로는 청룡구(靑龍口) - 삼황전(三皇殿) - 신농산 케이블카 하점(神農山索道下站) - 케이블카 상점(索道上站) - 일선천(一線天) - 중천문(中天門) - 정상 - 사신대(捨身臺) - 제왕송(帝王松) - 일선천(一線天) - 청룡산장 - 청룡구로 총 산행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